

“류현진은 숫자로 설명 불가능한 투수”



▲ 류현진. 사진=mlb.com

메이저리그(MLB)는 첨단 카메라 및 컴퓨터 장비가 속속 도입되면서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석 시스템에서 야구를 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공에 회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는 현장의 감은 이제 모든 공의 회전 수를 측정하는 컴퓨터 장비로 증명되고 있다.

9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타자들이 가장 어려운 공은 변화구가 아니다. 빠른 공, 그 중에서도 제구가 되는 빠른 공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처할 시간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수들은 되도록 빠른 공을 던지기 위해 노력한다. MLB를 주름잡는 투수들도 대개 95마일 이상의 빠른 공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다. 여기에 회전이 더 많이 걸리고, 수직 무브먼트까지 좋다면 금상첨화다.

지금도 수많은 투수들이 더 빠른 공, 더 많은 회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이유는 충분하다. 결과로 나타난다. 스포츠전문매체 ‘디 애슬레틱’은 “높은 회전율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다. 실제 패스트볼 회전 수 상위 25% 이내의 선수들은 16명이 평균자책점 3.00 이하, 그리고 11명이 평균자책점 2.50 이하다.”라고 회전 수와 성적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연결됨

을 강조했다.

하지만 ‘디 애슬레틱’은 “야구에서 절대적인 것은 없다.”면서 예외 사례도 들었다. ‘디 애슬레틱’은 “사실 하위 25% 선수들의 평균자책점은 4.24로 그렇게 끔찍하지는 않다. MLB 평균이 4.03이고, 25명 중 11명은 4.00 이하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몇몇 선수들은 아주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디 애슬레틱’이 첫 머리로 뽑은 예시는 바로 류현진(34·토론토)이었다.

‘디 애슬레틱’의 예시로 뽑은 4명의 선수 중 타이일러 로저스(샌프란시스코)의 경우 패스트볼의 회전 수가 하위 1%지만, 언더핸드 유형의 투수라는 점에서 조금은 예외로 살필 필요가 있다. 조시 플레밍(탬파베이)의 경우 상커 평균구속이 91.2마일이고, 마이클 피네다(미네소타) 또한 포심 평균구속은 약 91마일로 90마일을 넘긴다.

이런 가운데 류현진은 90마일이 안 되는 유일한 선수다. 류현진의 올해 포심 평균구속은 89.3마일에 머문다. 류현진의 포심 평균구속은 리그 하위 3%, 분당 1931회의 포심 회전 수는 하위 2%다. 메이저리그 선수 100명을 줄 세우면 구속은 97등, 회전 수는 98등인 셈이다. 근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커브 회전 수 또한 하위 43%로 리그 평균 수준이다. 포심의 수직 무브먼트(20.4인치)는 리그 평균보다 21%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현진은 뛰어난 제구력과 구종 선택으로 팀의 승리에 공헌하고 있다. 구속과 회전 수가 전부는 아님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때로는 야구에서 숫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류현진의 성적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NBA, 다음 시즌 일정 10월 개막-6월 파이널로 복귀

미국프로농구(NBA)가 2021-22시즌 정상 일정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11일 ‘MK스포츠’에 따르면 ‘디 애슬레틱’ NBA 전문 기자 웨임스 차라니아는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각 구단에 통보된 2021-22시즌 주요 일정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NBA는 9월 28일 트레이닝캠프를 시작해 10월 19일 정규시즌을 개막한다. 플레이오프는 4월 16일에 시작되며 파이널은 6월 2일 시작된다. 7차전까지 진행될 경우 6월 19일까지 열린다. 10월 개막, 6월 파이널

의 예전 일정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즌이 중단된 이후 약 1년 7개월만이다.

그사이 NBA는 비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했다. 중단 기간을 거쳐 2020년 7월에서 10월 사이 버블 방식으로 22개 팀이 참가해 잔여 시즌과 플레이오프를 소화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23일 2020-21시즌이 개막해 팀당 72경기 시즌을 치렀고 현재 플레이오프가 진행중이다. 이번 시즌 파이널은 7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손흥민 몸값, 세계 축구시장서 14위



▲ 손흥민. 사진=페이스북(손흥민 1st Vietnam Fanpage)

손흥민(29·토트넘)의 몸값이 세계 14위로 평가됐다.

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축구 통계 및 이적 사이트 트랜스퍼마크트는 전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선수들의 시장가치를 업데이트한 결과를 반영해 전체 몸값 순위를 조정했다.

손흥민의 몸값은 8,500만 유로(약 1억 500만 달러)였다. 이는 축구시장 전체 공동 14위, EPL 6위에 해당한다.

전체 1위는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23)로 1억 6,000만 유로의 몸값을 평가 받았다. 2위는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인 해리 케인(28)으로 1억 2,000만 유로, 3위는 도르트문트(독일)의 떠오르는 신예 엘링 홀란드(21)로 1억 1,000만 유로였다.

EPL 내에서는 케인에 이어 모하메드 살라흐(29·리버풀·1억 유로), 케빈 더 브라위너(30·맨체스터 시티·1억 유로), 브루노 페르난데스(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 9,000만 유로), 라힘 스텔링(27·맨체스터 시티·9,000만 유로), 손흥민 순이었다.

현역 최고의 축구선수로 꼽히는 FC 바르셀로나(스페인)의 리오넬 메시(34)는 8,000만 유로로 전체 22위, 유벤투스(이탈리아)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4,500만 유로로 전체 공동 95위에 랭크되는 등 손흥민 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 사이트에서 평가했던 메시의 과거 최고 몸값은 1억 8,000만 유로, 호날두는 1억 2,000만 유로였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8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